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3월 24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27장 9절-20절

설교제목 :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자신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선택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의 금식절기가 끝난 이후에, 9월 중순부터 3월까지의 지중해상에 돌풍이 부는 때였기에 항해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의 항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던 바울은 항해의 위험성을 알고, 미항에 머물 것을 권하였습니다.(9-10절) 그러나 바울과 달리, 배의 선장과 선주는 빨리 항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많은 선원들 또한 미항은 자신들이 겨울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뵈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길 원했습니다. 뵈닉스는 ‘**감람나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항에서 약 64km 정도 거리에 있는 항구인데 선원들이 원하는 두 가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항구입니다. 결국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과 다수 선원들을 말을 듣게 됩니다.(11-12절) 뵈닉스로 출항하자마자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풍은 순간이었고, 광풍이 대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풍은 그레테 섬으로부터 불어오는 **북동풍인 유라굴로**였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율리오의 선택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와 함께 하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집단을 이끌어가는 책임자에게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지혜자의 충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잠언12:15) 지혜로운 조언자란 다르게 말하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경험자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리오는 항해에 있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더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전문가의 지혜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0절에서 ‘**내가 보니**’로 번역된 ‘**데오레오**’는 헬라문헌에서 ‘**필연성**’이나, ‘**신의 작정에서 일어나게 될 어떤 일**’에 대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뉘앙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문화권에서 살았던 율리오 역시 바울이 선택한 어휘를 듣고는, 바울의 말이 단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계시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전문가들의 경험을 더 우선시하는 상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험에 의지하는 상식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시편 119:98-100)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성경의 지혜를 더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현명한 답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참된 지혜를 베풀어주십니다.(잠16:20)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과, 그리고 좋은 조언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지혜로운 자들의 의

견에 귀를 기울이되,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리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갑작스런 광풍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15절) 잘못된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힘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이 됩니다. 사공들은 풍랑 속에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수화물들을 버렸습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자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자신의 손으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13-18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또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값진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상실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암흑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해와 별은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란 의미는 모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끝없이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원의 여망마저’**에서 **‘여망’**으로 번역된 **‘엘피스’**는 **‘소망’**, **‘희망’**을 뜻합니다. 구원받을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20절)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암흑 속에 가둡니다. 살의 방향을 잃고 끊임없이 좌초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희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결국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이 낙심으로 인하여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이러한 낙심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따라서,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기자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42: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감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구속하십니다. 바라기는 낙심과 좌절과 우울한 생각을 떨쳐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칠후같은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율리오의 선택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 본문이 주는 현명한 선택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이외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